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제 3권 1호 (2015. 2) pp. 11~20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Vol. 3 Iss. 1 (Feb, 2015)

보건계열 대학생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실태 및 실천의지에 관한 조사

김기은, 한지형[1], 양진영[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의학교실, [1]수원과학대학교 치위생과, [2]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Study on Perception, Actual State and Practice will of Students in Faculty of Healthcare on Infection Management

Ki-Eun Kim, Ji-Hyoung Han[1], Jin-Young Yang[2]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130-701, South Korea.
[1]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Science College, 445-742, South Korea.
[2]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302-715, South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tudents in the nursing, dental hygienics, clinical laboratory, dental laboratory science and physiotherapy to understand their degree of awareness, actual condition on infection manegement and how willingly they would practice it so that the importance and need for infection management could be emphasized, which would lead to improved infection manag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in three colleges located in Dae-jeon, where self-corresponding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students in the departments of dental hygiene, clinical laboratory, dental laboratory science and physiotherapy after obtaining their consents. It turned out that infection management training for students in healthcare faculty would have to be highly recommended because it would provide them a chance to understand how important infection management training would be, and the students could implement it with the education. Perception on infection management is shown higher than degree of their actual conditions and practice will. And it can be concluded that including infection management training in curriculum in faculty of healthcare is necessary so that students have capacity to practice infection management in their future career.

교신저자: 양진영
(302-715)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Tel: (042) 580-6446, Fax: (042) 580-6301, E-mail: prime@dst.ac.kr
투고일: 2015. 01. 15. 심사일: 2015. 01. 26. 게제확정일: 2015. 02. 25.

Key words : infection management
색 인 : 감염관리

1. 서 론

감염은 19세기 중반 과학자들에 의해 미생물 또는 생물과의 접촉으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종의 병원성 미생물들이 거듭 생겨나면서 인류는 언제나 감염에 위협을 받고 있다(1).

오늘날 AIDS와 간염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진료환경은 감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2), 의료 관련 감염은 환자의 유병율을 증가시키고, 영구적인 후유증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의료종사자들은 감염성 질환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뿐만 아니라 감염의 매개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미국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의료진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공지하고 있으며(3), 미국 직업안전국(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보호복, 보호장구, 보호마스크, 보호안경, 안면보호대를 사용하여 병원균의 통로 차단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미국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의료장비의 규제, 소독의 안전성과 효율성 규제를 비롯하여 감염성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의 감염관리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4).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이후로 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최근에는 병원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등을 통하여 외래 및 병실 환자의 감염관리 규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병원에서 감염관리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진료실과 병실 등에서 표준화된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3).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은 다양한 질환에 이환되어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교차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5)의료종사자들은 감염방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계열 학생의 경우 재학시절부터 임상실습이나 상호실습에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보건인력으로 활동하게 될 보건계열학과 재학생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실천도는 치위생과나 간호과 등 일부 학과 재학생으로 편중되어 있고, 학과별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드문 현실이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학과 중 간호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치기공과, 물리치료과 재학생들의 감염관리의 인식과 실천도, 실천의지를 파악하여 감염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감염관리 행위 수준 향상 및 실천 범위를 확대하고자 진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 중 간호·보건·의료계열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3곳을 임의표본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연

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간호과 85명(24.4%), 물리치료과 59명(16.9%), 임상병리과 61명(17.5%), 치기공과 60명(17.2%), 치위생과 84명(24.1%) 학생의 총 349부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선행연구(6,7)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간호·보건계열에서 공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치위생과와 치과 관련 문항의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4문항, 감염관리교육 관련 2문항, 감염관리 인식관련 8문항, 감염관리 실태관련 8문항, 감염관리 실천의지 관련 12문항으로 인식, 실태, 실천의지 문항은 리커트(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실태, 실천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자료 분석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 ver. 18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 하였으며,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감염관리의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변수들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여 다중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Table 1과 같다. 여자가 78.8%, 남자가 21.2%로 여자가 많았다. 성별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률은 여자, 남자 각각 45.9%, 49.5%로 조사되었으며, 감염관리교육에 대한 경험은 여자가 41.1%, 남자가 24.3%로 여자가 높았다. 감염관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자는 매우 그렇다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보통이다가 36.5%로 가장 많았으나 남녀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학과에 따라 간호과는 B형 감염 예방접종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80.0%로 가장 높았으며, 치위생과는 45.2%였다. 감염관리교육에 대한 경험은 치위생과가 67.9%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과는 61.2%였다. 감염관리교육의 필요성은 치위생과와 간호과가 각각 91.6%, 85.9% 긍정적으로 답해 다른 학과 학생들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학년이 높을수록 B형 간염 예방접종과 감염관리교육에 대해 경험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감염관리교육의 필요성도 학년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Characteristics	Vaccinated against Hepatitis B			Trained for infection management		Is training for infection management necessary?					Total
	Yes	No	Not sure	Yes	No	Strongly agree	Agree	Neither agree or dis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Gender											
Male	34(45.9)	18(24.3)	22(29.7)	18(24.3)	56(75.7)	15(20.3)	25(33.8)	27(36.5)	6(8.1)	1(1.4)	74(21.2)
Female	136(49.5)	62(22.5)	77(28.0)	113(41.1)	162(58.9)	103(37.5)	102(37.1)	62(22.5)	8(2.9)	0(0.0)	275(78.8)
Faculty											
Nursing	68(80.0)	6(7.1)	11(12.9)	52(61.2)	33(38.8)	43(50.6)	30(35.3)	9(10.6)	3(3.5)	0(0.0)	85(24.4)
Physiotherapy	16(27.1)	21(35.6)	22(37.3)	2(3.4)	57(96.6)	5(8.5)	22(37.3)	27(45.8)	5(8.5)	0(0.0)	59(16.9)
Clinical laboratory	24(39.3)	15(24.6)	22(36.1)	9(14.8)	52(85.2)	10(16.4)	29(47.5)	21(34.4)	1(1.6)	0(0.0)	61(17.5)
Dental laboratory	24(40.0)	18(30.0)	18(30.0)	11(18.3)	49(81.7)	11(18.3)	18(30.0)	26(43.3)	4(6.7)	1(1.7)	60(17.2)
Dental hygienics	38(45.2)	20(23.8)	26(31.0)	57(67.9)	27(32.1)	49(58.3)	28(33.3)	6(7.1)	1(1.2)	0(0.0)	84(24.1)
Grade											
1st grade	33(29.5)	28(25.0)	51(45.5)	26(23.2)	86(76.8)	27(24.1)	45(40.2)	39(34.8)	1(0.9)	0(0.0)	112(32.1)
2nd grade	62(50.8)	26(21.3)	34(27.9)	42(34.4)	80(65.6)	37(30.3)	48(39.3)	27(22.1)	9(7.4)	1(0.8)	122(35.0)
3rd grade	75(65.2)	26(22.6)	14(12.2)	63(54.8)	52(45.2)	54(47.0)	34(29.6)	23(20.0)	4(3.5)	0(0.0)	115(33.0)
Total	170(48.7)	80(22.9)	99(28.4)	131(37.5)	218(62.5)	118(33.8)	127(36.4)	89(25.5)	14(4.0)	1(0.3)	349(100.0)

3.2. 병원관리감염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 정도

연구대상자의 병원관리감염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 정도를 파악하기 가장 높은 점수를 5로, 가장 낮은 점수를 1로 하여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인식과 관련된 질문 중 '감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진료 전, 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진료 전, 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 '감염성 물질과 접촉하면 손을 씻어야 한다'가 각 각 4.71, 4.69, 4.69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실태관련 질문에서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감염성 폐기물을 라벨이 부착된 지정 장소에 배출하였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씻었다', '규정에 맞는 소독법을 실천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실천의지의 경우 '감염성 물질과 접촉하면 손을 씻을 것이다', '감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진료 전, 후에 손을 씻을 것이다'가 4.61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모든 항목에 있어서 긍정적 의지를 보였다.

<Table 2> Perception, actual condition and willingness to practice on infection management

Question	M	SD
Perception		
Infection can be prevented by washing hands	4.36	0.62
Need to wash hands after touching infectious material.	4.69	0.53
Need to wash hands before and after giving treatment to a patient with infectious disease.	4.71	0.51
Need to wash hands before and after giving treatment to patients with low level of immunity.	4.69	0.53
During treatment, need to wear protective equipments (gloves, mask etc.).	4.52	0.66
*It is ok to have foods in doctor's office.	2.17	1.12
The bigger the clinic is, the better infection management is delivered.	3.75	1.17
Actual condition		
Wash hands before start work every day.	3.29	1.52
Wear protective equipments	2.89	1.54
Wear accessories in doctor's office	2.89	1.67
Go out during work hour in uniform.	2.75	1.59
Discharge infectious waste to designated spot with label	3.44	1.67
Use sterilization following regulation	3.23	1.54
*Use pens or remote control after touching infectious materials	2.52	1.45
Willingness to practice		
Wash hands after touching infectious materials.	4.61	0.53
Wash hands before and after giving treatment to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	4.61	0.54
Wash hands before and after giving treatment to patients with low level of immunity.	4.58	0.57
During treatment, need to wear protective equipments (gloves, mask etc.).	4.52	0.66
Wash hands before start work every day.	4.54	0.65
Wear appropriate protective equipments	4.48	0.70
*Wear accessories in doctor's office	2.28	1.20
*Use pens or remote control after touching infectious material	2.14	1.11
* Go out during work hour in uniform.	2.12	1.12
Discharge infectious waste to designated spot with label	4.36	0.91
Use sterilization following regulation	4.52	0.66

*Reverse computation is used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를 비교한 결과 성별의 경우 여자가 인식과 실천의지에서 각각 4.15, 3.92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5, p=.002). 학과별로 비교한 결과 인식에서 간호과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치위생과 4.21, 임상병리과 4.12 순으로 나타났다(p=.026). 실태는 간호과가 3.39로 가장 높았고, 치기공과가(3.37), 물리치료과(2.93) 치위생과(2.89) 임상병리과(2.34)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001). 학년의 경우 인식과 실태에서 3학년이 3.67, 2학년이 3.31, 1학년이 1.98로 학년이 높을수록 감염관리를 잘 실천하고 있었다.

B형 감염접종을 한 응답자중 실태에 대한 정도가 3.38로 가장 높아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이 역시 감염관리 실태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감염관리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인식과 실천의지가 더 높았다(p<.001, Table 3).

<Table 3> Perception, actual condition and willingness to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Perception	Actual condition	Willingness to practice
Gender			
Male	4.02±0.42	3.13±1.12	3.77±0.40
Female	4.15±0.37	2.97±1.32	3.92±0.36
p	.015	.349	.002
Faculty			
Nursing	4.25±0.36^{bc}	3.39±1.28^{b}	3.88±0.36^{ab}
Physiotherapy	4.01±0.43^{ab}	2.93±1.10^{ab}	3.85±0.40^{ab}
Clinical laboratory	4.12±0.37^{abc}	2.34±1.58^{a}	3.89±0.33^{ab}
Dental laboratory	3.95±0.42^{a}	3.37±0.46^{b}	3.78±0.40^{a}
Dental hygienics	4.21±0.39^{bc}	2.89±1.47^{ab}	3.99±0.35^{b}
p	.026	p<.001	.106
Grade			
1st grade	4.04±0.41^{a}	1.98±1.68^{a}	3.85±0.41^{a}
2nd grade	4.14±0.37^{ab}	3.31±0.68^{b}	3.81±0.36^{a}
3rd grade	4.20±0.37^{b}	3.67±0.44^{c}	4.01±0.31^{b}
p	.323	p<.001	.054
Vaccinated against Hepatitis B			
Yes	4.20±0.37^{b}	3.38±0.93^{c}	3.94±0.35^{b}
No	4.07±0.40^{ab}	2.88±1.36^{b}	3.90±0.35^{ab}
Not sure	4.04±0.38^{a}	2.45±1.51^{a}	3.79±0.37^{a}
p	.382	p<.001	.116
Trained for infection management			
Yes	4.23±0.34	3.21±1.29	3.99±0.31
No	4.07±0.40	2.88±1.26	3.83±0.39
p	p<.001	.023	p<.001

3.4.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의 상관관계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를 pearson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인식과 실천의지의 상관계수가 0.359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식과 실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관계가 미비하였고, 실태와 실천의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ctual condition and willingness to practice

	Perception	Actual condition	Willingness to practice
Perception	1		
Actual condition	0.167**	1	
Willingness to practice	0.359***	0.050	1

**p<0.01, ***p<0.001

4. 고안

현대의 의료 환경은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고, 각종 소독제가 사용되며 장갑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요법의 발달,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환자의 증가, 침습적 시술의 보편화, 인공의료기구 사용증가, 항생제 내성 증가 등으로 인해 병원감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8).

이에 본 연구는 의료 환경에서 감염관리 활동을 꾸준하게 할 보건계열학과 재학생들의 감염관리의 인식과 실천도, 실천의지를 파악하여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염관리 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B형 간염 예방접종 유무에 대하여 48.7%가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과 김(9)의 55.9%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접종률의 상향을 위해 B형 간염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염관리교육의 경험유무는 37.5%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간호과와 치위생과 재학생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임상병리과 학생의 경우 졸업 후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채혈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치기공과와 물리치료과 학생의 경우도 기구 및 공기를 매개로하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므로 보건계열의 학과라면 감염관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감염관리교육의 필요성에 응답자의 70.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감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병원관리감염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 정도에서 손 씻기와 관련된 항목의 점수가 높게 조사되었지만 실태의 손 씻기 항목은 그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신종플루나 독감 등의 질환이 유행하여 매스컴 등에서 손 씻기가 강조되는 시기에는 관심이 높지만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감염관리교육 시 손 씻기로 병원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글러브를 착용한다하더라도 착용 전·후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 비교에서 인식과 실천의지의 경우 간호과와 치위생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교과과정 중에 감염관리에 관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병원의 감염관리 위원회의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로 배치되어 병원감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치위생사의 경우는 치과 진료 특성상 환자와의 거리가 가깝고 예리한 기구를 직접 사용하는 스케일링 등을 직접 시술하므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재학시절부터 강조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치기공과의 인상체를 통한 교차감염, 임상병리과의 경우 가검물의 검사, 채혈 및 생리학적 검사 시, 물리치료과의 경우 마사지, 재활훈련 시 사용되는 기기를 통한 교차감염의 위험성과 공기를 통한 호흡기 질환 감염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감염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실태는 치기공과가 가장 높았고 간호과, 치위생과 순으로 나타났는데 타과에 비해 치위생과의 경우 여러 보호장비의 착용이나 소독, 멸균의 시행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마사지, 신체교정 및 재활훈련 시 치료실에 내원하는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만큼 비말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은 재학시절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년별 비교의 경우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에서 모두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과과정 중 감염관리 교육이나 임상실습을 통한 자기실천의 결과라 생각되며, 감염관리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실태 및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집단의 경우 감염관리 원칙에 보다 충실하다는 기존연구의 결과(10)와도 일부 일치하였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식, 실태 및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올바른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의 상관관계에서는 인식과 실천의지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식과 실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관계가 미비하였다. 이는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수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Singh 등(11)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으며, 일부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다고 보고(12)된 바가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과별로 환자에 대한 접근방법과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관리 교육의 내용과 시간에 차이가 있고, 전공별로 서로 다른 임상환경에 노출되므로 일률적인 평가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본 연구는 특정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보건계열의 큰 축을 이루는 과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실태 및 실천의지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평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건계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율을 높인다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지역 일부대학의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일반화하기 어렵고 각 학과의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아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실천의지에 대해 비교 조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감염관리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한 감염관리 인식과 제도 및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학과 중 간호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치기공과, 물리치료과 재학생들의 감

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실천의지를 파악하여 감염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감염관리 행위 수준 향상 및 실천 범위를 확대하고자 대전광역시 소재 간호·보건계열 학과 재학생 211명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학의 전공교육으로 연구대상 학생들 중 37.5%가 감염관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70.2%가 감염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감염관리 인식과 관련하여 '감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진료 전, 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4.71), 감염관리 실태 관련하여 '감염성 폐기물을 라벨이 부착된 지정 장소에 배출하였다'(3.44), 감염관리 실천의지와 관련하여 '감염성 물질과 접촉하면 손을 씻을 것이다', '감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진료 전, 후에 손을 씻을 것이다'(4.61)로 각 항목별 질문에서 5점 만점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모든 항목에 있어서 긍정적 의지를 보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 실태, 실천의지를 비교한 결과 성별 비교에서는 인식과 실천의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5, p=.002). 학과별 인식 비교에서는 간호과가 가장 높았으며,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순을 보였다(p=.026). 학과별 실태 비교에서는 간호과, 치기공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4. B형 간염예방접종 여부를 비교한 결과 실태(3.38), 실천의지(3.9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p=.116). 또한 감염관리교육 경험 유무 비교에서는 교육경험자가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인식(4.23), 실태(3.21), 실천의지(3.99)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p=.023, p<.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보건계열 학생들은 대학 전공교육과정 중 감염관리교육을 통하여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재학기간 중 감염관리 실천을 통하여 체화하게 되므로 감염관리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학생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실천의지는 현재 학생들의 인식과 상응할 정도로 조사되었으므로 병원감염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잘 교육받은 학생들이 향후 임상현장에 취업 하여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간호·보건계열의 학과 교육과정 중에 감염관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6. 참고문헌

1. 김수경. 치과의료종사자의 감염방지 실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천안: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2. 오세광.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1판. 서울: 한길치학연구회; 1995:18.
3. 김한나, 배성숙, 노희진. 일부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B형 간염환자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임상감염관리 실천도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12;13(1):45-53.
4. 최하나, 배현숙, 조영식. 치과 감염 관리에 관한 국내 문헌고찰(1988~2009년). 한국치위생과학회 2010;10(4):199-209.
5. 김순옥, 조수현. 임상간호사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 실천정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7;27(4):765-776.
6. 이지영, 정미경. 치위생과 학생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 조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9;9(2):73-88.
7. Lee YK, Kim SD. About dentistry infection

from dentistry medical institution recognition research of patient. J Korean Soc Dent Hyg 2010;10(4):617-25.
8. 김의종. 국내 의료관련감염현황. Hanyang Medical Reviews 2011;31(3):135-140.
9. 정기옥, 김주영. 일부 보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9;9(2):125-136.
10. 김지현, 김진경.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교육경험에 따른 감염관리 실태. 한국치위생학회지 2011;11(4):547-556.
11. Singh A, Purohit BM, Bhambal A, Saxena S, Gupta A.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regarding infection control measures among dental students in Central India. J Dent Educ 2011;75(3):421-427.
12. 김귀란, 최의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지도와 수행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5;11(3):232-240.